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설교

여러분은 배가 고프는데 먹을 게 없었던 적이 있나요? 혹은 친구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고 싶었지만 내가 가진 게 너무 적어서 망설였던 적 있나요? 오늘 말씀 속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온 5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먹을 것은 겨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해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놀랐어요. 가진 게 너무 적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나에게 드리면 그것은 충분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시간, 작은 정성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라고 생각한 적 있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혼자 앉아 있는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 이 모든 것이 ‘작은 떡과 물고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여러분의 짧은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기뻐해 다 같이

말씀봉독 누가복음 9:10~17절 다 같이

설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설교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 같이

- ★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찬 양



▶ 찬양 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작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작은 헌신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시간, 재능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했을까요?
2. 내가 가진 '작은 것'(시간, 재능, 물질 등)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충일교회 가정예배부